



김승필



이미례



정지우

지역출신 신인작가들 신춘문에 속속 등단

한국문단에 활기 불어넣는다

‘문학의 위기’라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신춘문에는 문학에 꿈꾸는 작가들의 꿈의 등용문이다. 삶의 무게가 버거운 만큼 문학적 상상력으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글쓰기가 많아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각 일간지 신춘 문에 응모자도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 일간지 신춘문에는 지역 출신 신인들이 적지 않아 한국 문단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늦깎이’ 문인들도 많이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광주 정광고 교사인 김승필(45)씨는 올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삼거리점방’이라는 시가 당선돼 문단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신인 출생인 그의 시는 심사위원인 박남준·김정란 시인에게 각각 “언어를 다루는 그 맛이 아삭아삭 거러며 곱삭은 젓갈 맛이 감돈다”, “능숙하게 이어지는 가락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정겨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는 평을 들었다.

순천 왕조초교 교사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에 파견 근무중인 이미례(53)씨는 ‘시계수리점의 아기 고양이’라는 제목의 동화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공식적인 ‘문인’ 명함을 내밀게 됐다.

구례 출신으로 논술언어력지도교사인 정지우(43)씨도 10년 가까운 도전 끝에 올해 문화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 기쁨을 누렸고 고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김혜옥



염연화

광주일보 시 당선 김승필·한국일보 동화부문 이미례씨 등

일간지 신춘문에 응모자 크게 늘어... 늦깎이 문인들도 많아

뒤 서울상경초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있는 김혜옥(44)씨도 ‘천둥번개는 곧 그쳐요’로 문화일보 동화 부문에 당선됐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출신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 염연화(38)씨도 전북일보 신춘문

예 동화부문에 당선, 올해 첫 지면에 얼굴을 알렸다. 이와 화순 출신인 정와연(66)씨도 부산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에 ‘네팔 상화’가 당선돼 등단하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3년 제58회

호남 예술제

전국대회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58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구분	예선 지정곡(3곡중 1곡)	본선 지정곡(3곡중 1곡)
초등부1~2학년	예선 없음 (단선)	1) Beethoven Sonata in G Major, Op.49 No.2 제1악장 2) Haydn Sonata in C Major, Hob. XVI: 35 제1악장 3) Chopin Waltz in D Major, Op.64 No.1
초등부3~4학년		1) Haydn Sonata in e minor, Hob. XVI: 34 제1악장 2) Mozart Sonata in G Major, K. 283 제1악장 3) Schubert Impromptu in Eb Major, Op.90 No.2
초등부5~6학년		1) Beethoven Sonata No.6 in F Major, Op.10 No.2 제1악장 2) Schubert Sonata in A Major, Op. posth. 120 D 664 제3악장 3) Chopin Impromptu No.1 in Ab Major, Op. 29
중등부	1) Chopin Etude Op.10 No.5 2) Chopin Etude Op.25 No.3 3) Liszt Paganini Etude No.4 in E Major	1) Beethoven Sonata No.4 in Eb Major, Op.7 제1악장 2) Beethoven Sonata No.14 in e# Minor, Op.27 No.2 제3악장 3) Schubert Sonata in Eb Major, Op. posth. 122 D 568 제1악장
고등부	1) Chopin Etude Op.10 No.4 2) Chopin Prelude in Bb Minor, Op.28 No.16 3) Liszt Transcendental Etude No.10 in f minor	1) Beethoven Sonata No.7 in D Major, Op.10 No.3 제1악장 2) Beethoven Sonata No.26 in Eb Major, Op.81a 제3악장 3) Chopin Sonata No.2 in Bb minor, Op.35 제1악장
성악독창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독주)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합주)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중창·중주 : 자유곡 1곡 합창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유의 사항 1. 개인참가부문은 양보(喺讓)를 원칙으로 함. 2.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3.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중 중단할 수 있음. 4. 예·본선이 있는 부문은 참가자의 40%를 본선진출자로 선발하며, 기타 부문은 참가자의 30%를 입상선으로 함. 문의 :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062)220-0541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

개최요강(음악부문)

- 대회기간 : 2013년 4월 24일(수) ~ 6월 29일(토)
-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 구분(음악부문)
 - 1)성악독창 2)피아노 3)바이올린 4)첼로 5)플루트 6)관악독주
 - 7)현악독주 8)기악독주 9)중창·합창 10)중주·합주(관악·현악·기악) 11)실용음악
- 심사 :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위원은 선정 마감후에 위촉함.
- 시상
 - 1)개인·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2)합창·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3)개인·단체 최고상, 합창·합주제 대상 :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참가신청
 - 1)기간 : 2013년 4월 4일(목) ~ 4월 17일(수)
 - 2)방법 : 인터넷, 우편,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
-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월초 게재될 광주일보사 사고(社告)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체 대회요강은 3월초에 발표됩니다.

광주일보사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가들 작품집 풍성

신춘문에는 문학을 꿈꾸는 지방생들에게 가장 화려한 등단 코스다. 하지만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에도 자신을 이롭게 건 작품집을 내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창작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건상 여러 편의 글을 모아 엮어 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출간의 기준으로 삼는 출판사가 많아 책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등단한 뒤 작품집을 내지 못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 ‘종이책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이 잇따라 작품집을 내놓는 등 왕성한 활약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영광 출신으로 지난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강철씨는 최근 ‘수양산 그늘’이라는 소설집을 냈다.

소설집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암행’을 비롯, ‘운수좋은 날’,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들만의 리그’ 등 7편을 엮어냈다. 익히 알려진 소설이나 영화를 패러디하면 서 작가의 시각을 담아낸 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광덕고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신·열하일기’, ‘블라인드 스크롤’ 등

정강철 ‘수양산 그늘’

나정이 ‘미완의 퍼즐’

김선태 ‘진정성의 시학’

장편소설을 내는가 하면, 7편의 소설을 엮어낸 정도로 성실한 글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정이씨도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처음으로 ‘미완의 퍼즐’이라는 소설집을 펴냈다. 소설집에는 기차길 옆에 살았던 작가의 경험과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8개의 단편을 한 데 모아 내놓았다.

“소설에 발을 담근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변인처럼 곁돌다가 이제야 작품집을 엮는다”는 작가의 말에는 등단 뒤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집을 내기까지의 어려움이 묻어있다. 그만큼 8개의 소설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며 써내려간 작가의 열정이 담겨있다.

지난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던 김선태 목포대 국문과 교수도 ‘진정성의 시학’이라는 평론집을 내놓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평론집은 김지하 시인과 대담을 비롯, 2005년 이후 지역문학·작품론·시집 평·시평 등 각종 문예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엮었다. 책은 ‘풍경과 성찰의 언어’에 이은 두번째 평론집으로, 비평의 부재와 타락을 지적하며 진정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향인 강진과 거주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권 문학의 어제와 오늘’, ‘목포 해양문학의 흐름과 과제’, ‘강진의 현대문학’ 등으로 지역 문학의 흐름을 정리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허형만·송수권·이근배·김영랑 시인의 시세계도 한 데 모았고 한국 생애시의 현황과 과제도 부록으로 곁들였다.

이와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발을 디딘 이원화씨와 2009년 신춘문예 출신인 차노희씨도 각각 ‘길을 묻다’, ‘기차가 달린다’는 소설집을 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대표작가 1위 서도호·미술계 파워는 홍라희 관장

한국미술시가감정협 등 조사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서도호(51)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생존 작가’ 1위에 올랐다. 김선정(48) 광주비엔날레 공동책임감독은 ‘국내 미술계를 움직이는 인물’ 8위에 올랐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년 연속 국내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2일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미술 월간지 ‘아트프라이스’와 공동으로 발표한 ‘2012 한국 미술계의 힘’ 조사에 따르면 설치미술가 서도호씨

가 지난해 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미술인과 일반인 등 336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을 대표하는 생존 미술가’ 질문에 1위에 꼽혔다. 서씨는 지난해 1위에 올랐던 이우환(2012년 2위) 작가와 천경자(> 3위) 화백을 제치고 국내 미술계에서 대표하는 생존 작가1위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서씨는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때 대한 시상, 가톨릭대 기숙사 등을 활용한 작품과 특새호텔이라는 폴리 프로젝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 출신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도 전년도 25위에서 17위로 크게 뛰었다.

‘한국미술계를 움직이는 대표적 인물’로는 리움미술관 홍라희 관장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박명자 갤러리현대 대표, 표미선 <한글문화원> 이사장,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 오광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순이었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공동책임감독은 이번 조사에서 8위에 오르며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가장 가고싶은 미술관’과 ‘가장 가고싶은 화랑’에는 각각 삼성리움미술관과 갤러리 현대가 1위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K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